

하늘사랑

www.kma.go.kr Vol.397

2014. July 7

풍경이 있는 여행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울릉둘레길'

맛있는 계절

여름철 대표 별미 3

열린마당

기상장비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민간기술협력 박람회'
'다락방'과 함께한 150회 순간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7월,

상생과 배려를 향한
첫 걸음



기초연금 시작됩니다

더 필요한 어르신을 배려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은 덜어주는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입니다.
받으시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기초연금을 더해서 드립니다.

제도 안내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첫 지급일 : 7월 25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료 됨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연금콜센터 (☎1355), 읍·면·동 주민센터

시행 안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에 신청해주세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7월 7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 기초연금 신청 불필요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이미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필요 없음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의 가치는 상생과 배려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익, 돌봄 등으로 생애가 어려워 할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



July 7



02



15



16

Contents

KMA Special Issue

- 풍경이 있는 여행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울릉도레길' · 02
- 시티투어로 떠나는 부산 구(九)경 · 04
- 온몸으로 체험하는 '보령머드축제' 100배 즐기기! · 06
- 맛있는 계절 여름철 대표 별미 3 · 08
- 날씨 예세이 매출을 쑥쑥 올려주는 똑똑한 '날씨경영' · 10
- 여름철 '머우리'에 대한 의리! · 12

KMA About

- 열린마당 한여름 밤의 포항 로맨스 · 14
- '마시따, 마시따' 점점 하나 되는 광주청과 요녕성 · 16
- 기상장비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민간기술협력 박람회' · 18
- 작은 거위를 아시나요 · 20
- 11주 동안의 잊지 못할 추억 · 22
- '다락방'과 함께한 150회 순간 · 24

KMA Hope

- 신간 소개 재미있는 날씨와 기후 변화 이야기 · 26
- 2030 솔로탈출 '특급' 반전 있는 그녀 · 27
- 날씨만화 물놀이 가자 · 28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2014년 7월호(통권 397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4년 7월 10일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고윤화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전준모 편집기획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행남등대에서 본 저동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울릉둘레길'



이원길 / 울릉도기상대

울릉도기상대로 발령받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간다. 그동안 주말마다 '울릉둘레길'을 걸었는데, 이곳의 숨은 보물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였다. 또한 자연의 신비를 보는 즐거움과 맛있는 먹거리도 가득해 울릉도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다. 자, 산과 바다, 사람들이 있어 즐거운 울릉도로 함께 떠나보자.

울릉둘레길은 해안일주도로가 생기기 전, 원주민들이 울릉읍으로 향할 때 다니던 옛길을 복원한 걷기 코스이다. 산과 바다를 오르내리면서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길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있다. 길 따라 어김없이 서 있는 아담한 집들과 그 주변에 있는 비탈진 약초밭들의 놀라운 풍경은 걷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울릉둘레길 1구간(약 25km, 6시간 소요)

도동 → 저동 → 내수전전망대 → 정매화곡쉼터 → 석포(안용복기념관) → 선창 → 섬목 → 관음도 → 천부

울릉도의 북쪽 해안을 걷는 구간으로 산과 숲, 바다와 바위섬이 고루 어우러진 옛길이다. 걷다가 작은

어촌 마을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봄철엔 바닷바람에 날리는 벚꽃 잎과 함께 내수전전망대를 오르기도 한다. 이곳에서 저동항과 시원스레 펼쳐진 동해바다를 보고 있으면 '울릉천국'이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석포로 이어지는 숲 속의 흙길에 접어들면,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이효영 씨 가족이 살면서 폭우나 폭설이 있을 때 무려 300

여 명을 구조했던 정매화곡 섬터가 멋스러운 바위와 소담한 계곡과 어우러져 여행객을 맞이한다. 여정의 피로를 풀어줄 먹거리는 천부의 작은 식당에서 시원하고 담백한 콩치물회로 하면 좋을 듯싶다.



내수전전망대에서 본 저동항

울릉둘레길 2구간(약 8km, 4~5시간 소요)
3구간(약 8km, 4~5시간 소요)

도동 → 사동 → 중령 → 아랫통구미 → 윗통구미 → 남양, 남양 → 남서동고분군 → 태하령 → 태하등대 → 대풍감

울릉도의 서쪽을 아우르는 구간이다. '생태계의 보고' 성인봉의 서쪽 봉우리인 태하령 고갯길을 넘나드는 재미가 있다. 또한 자생하는 솔송, 섬жат, 너도밤나무 군락지를 볼 수 있다. 숲길을 빠져 나오면 태하마을로 접어드는데, 이곳은 일몰이 아름다운 태하등대가 있는 곳이다. 모노레일과 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둘레길을 걷다 보면 등대에 오를 수 있다. 태하등대와 더불어 이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월간지 <산>에서 뽑은 '우리나라 10대 비경' 중 하나인 대풍감이다. 해안 절벽 풍광과 에메랄드빛 바다색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는 곳이다. 울릉도만의 맛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먹거리로는 중간지점인 남양에서의 따개비칼국수, 마지막 목적지인 태하마을에서는 자장면을 추천한다.



대풍감

성인봉-나리분지 구간(약 10km, 4~5시간 소요)

도동 → 독도전망대 → 성인봉(안평전 코스, 대원사 코스, KBS 코스) → 나리분지 → 천부, 추산

3코스 모두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 쉽진 않지만, 햇빛을 받는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과 풍경이 있어 즐거워진다. 더욱이 6월 초까지 계절을 잊은 듯 남아있는 눈과 계절마다 덤으로 얻는 각종 산나물, 열매도 만날 수 있다. 정상에서 한참 내려가다 보면, 울릉도가 간직한 '비밀의 평원'인 나리분지에서 편한 맘과 걸음으로 맘을 식힐 수 있다. 그리고 끝자락에 다다르면 여정의 피곤함을 달래줄 시원한 막걸리와 산채비빔밥이 기다린다. 산길을 힘들게 걸어왔기에 무엇인들 맛이 없겠냐마는, 그래도 확 트인 자연과 함께하는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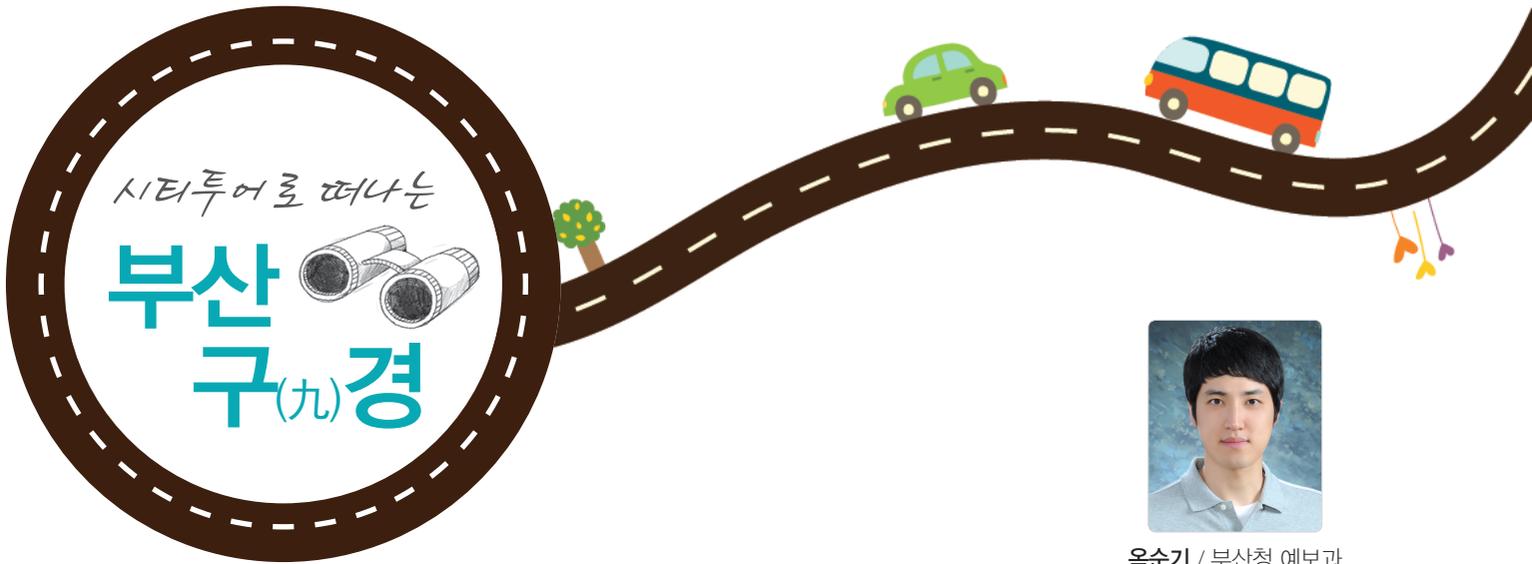
저동항 야경

봉래폭포 가는 길(약 6km, 2~3시간 소요)

도동 → 행남해안산책로 → 행남등대 → 촛대암 → 저동항 → 봉래폭포

울릉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의 첫 번째 코스인 행남해안산책로, 바다와 마주한 기암절벽과 천연동굴의 절경, 그리고 그 틈새로 보이는 짙은 에메랄드 물빛은 울릉도의 신비로움을 전해주기에 충분하다. 해안산책로를 지나면 여름 밤바다의 오징어잡이배 불빛이 장관인 저동항이 있다. 회를 좋아하면 신선한 수산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을 듯하다. 시가지에서 봉래폭포로 이어진 길에는 시원한 계곡물과 작은 폭포들, 그리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풍혈(風穴)이 있다. 하늘로 길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있는 작은 휴양림에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며 폭포에 도착하면 된다.

울릉둘레길을 걷다 보면, 우연히 만난 주민이나 낯선 여행객에게서 작은 정을 나눌 수 있다. 이번 여름, 휴식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보는 건 어떨까? 물론 사전에 해양기상정보 확인은 필수! 이미 봄을 경험한 나는 울릉도의 여름, 가을, 겨울로의 아름다운 행진을 한껏 기대하고 있다.



옥순기 / 부산청 예보과

올해부터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 시티투어와 함께하는 ‘부티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과의 ‘의리’로 30년을 살아왔지만, 부산시티투어 기상정보를 제공하면서 아직도 못 가본 곳이 있고, 이미 가 본 곳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하는 이 도시가 정말 매력적인 곳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부산시티투어로 가 볼 수 있는 부산의 아홉 군데 명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시티투어버스



광안대교



부산불꽃축제

제1경 ▶ 광안리해수욕장

도심 속 휴양지로, 반월형으로 휘어진 모래사장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곳이다. 윈드서핑과 같은 해양레포츠와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갖가지 먹을거리와 카페가 준비해 있다. 또한 그 주변으로 상설 무대들이 수시로 설치되어 멋진 공연도 볼 수 있다.

제2경 ▶ BIFF광장

매년 가을, BIFF광장 주변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다. 이 영화제는 미국 시사 잡지 <타임>에서 ‘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손꼽을 만큼 큰 행사이다. BIFF광장은 부산국제영화제를 1년 365일 만날 수 있는 곳이며, 남포동 내 약 400m에 달하는 거리를 ‘스타의 거리’, ‘영화제의 거리’로 나누어 조성돼 있다. 매년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행사로 유명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눈꽃점등 행사가 열린다.

제3경 ▶ 해운대해수욕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산이라고 하면 ‘해운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말이 필요 없는 관광 명소이다.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얇은



수심으로 해수욕을 즐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외에도 달맞이 축제, 북극곰 수영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자주 있어서 해외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제4경 ▶ 달맞이길

달맞이길은 해운대를 지나 송정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약 8km가량의 해안 도로이다. 이 도로를 따라 벚나무와 소나무가 이어져 있어 드라이브하기에 좋다. 또한 꼭대기에는 해월정이 있는데, 대한팔경 중 하나로 일출과 월출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제5경 ▶ 복천박물관

부산에는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명소들도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복천박물관이다. 복천동 고분군에서 발굴한 각종 무덤과 유물 등 12,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고대 부산 지역의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제6경 ▶ 금련산 봉수대

금련산은 해발 428m로 도심 속에 있는 산이다. 산정이 비교적 평탄하여 가볍게 걷기 좋고, 산 정상 봉수대에서는 부산 시내를 한눈에 볼 수도 있다. 특히 야경이 매우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기분 전환하기에도 좋다.

제7경 ▶ 이기대 해안산책로

이기대(二妓臺)라는 지명은 임진왜란 당시, 두 기생이 술에 취한 왜장과 함께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조용한 주거지 옆에 자연이 만든 바위와 해안선을 따라 놓인 2km 정도의 산책로이다. 이곳은 넓게 펼쳐진 동해바다를 조용히 바라보기에 딱 맞는 곳이다.



금련산



이기대

제8경 ▶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공원은 지난 5월에 개장한 공원으로 바쁜 도심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500,000㎡ 이상의 면적에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이렇게 5가지 주제로 공원이 구성되어 있다. 공원 안에는 100여 종에 달하는 나무들과 분수 및 각종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제9경 ▶ 을숙도 에코센터

을숙도 에코센터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철새공원을 보전, 관리하고 자연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갯벌 및 곤충체험과 같은 자연체험 프로그램과 조류 관찰과 같은 실내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끼리 나들이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부산시티투어 버스는 부산역 광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코스별, 테마별로 선택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티기상정보는 부산지방기상청 홈페이지(busan.k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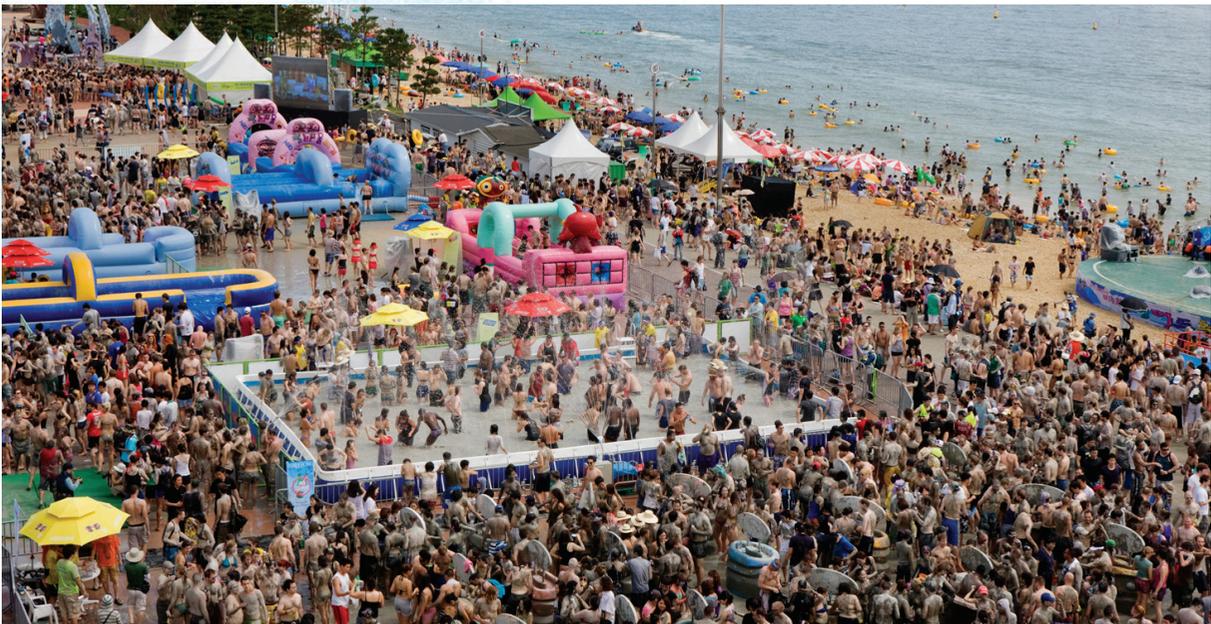
“을여름 쭉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주저 말고 부산으로 오세요!”

온몸으로 체험하는 ‘보령머드축제’ 100배 즐기기!

이번 여름은 유난히 일찍 찾아온 탓에 보령의 유명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도 지난 6월 14일에 평소보다 일찍 개장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는 ‘보령머드축제’도 곧 다가온다. 보령시에서 주최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인 머드축제는 오는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열리는데, 벌써 충남 서해안의 작은 도시인 보령은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도로변 가로등에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고, 각종 행사 안내장과 홍보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기 시작했다.



김미주 / 보령기상대



흠뻑 빠져라!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 중 한 곳인 부산 해운대 시민으로서 20년 가까이를 살아온 나로서는, 항상 여름이면 다가오는 바다축제이니 여타 해수욕장 축제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상지원 준비를 위해 보령머드축제에 대해 알아보니, 이는 선부른 판단임을 금세 깨

달을 수 있었다. 해수욕장에 당연히 모래는 많지만, 진흙을 소재로 축제의 장을 펼치는 건 이곳 대천해수욕장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했다. 이것이 바로 보령만이 가지는 큰 차별성인 것이다.

머드에 온몸을 흠뻑 빠뜨리고, 좋은 피부를 위해 얼굴에 마구 바르고, 진흙덩이를 뭉쳐서 장난스레 서로에게 던지다 보면 국적불문, 어른, 아이 할 것 없



사진 제공: 보령시청

이 모든 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은가?

언제부터가 스페인의 유명한 ‘토마토축제’처럼 머드 축제 마니아가 생기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더 좋아하는 체험 축제로 자리 잡아 작년에는 317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머드축제에 참여했다. 충남 전체 인구가 2백만 명을 갓 넘는데, 단 10일 동안 이 작은 도시에 3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다니, 가히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우리도 함께 떠나보자. Let’s go!

맘껏 뒹굴어라!

부푼 기대를 안고 서울에서 차를 이용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남짓 달리면 어느새 머드축제의 장이 열리는 대천해수욕장에 도착한다. 햇살이 비치는 한가로운 들녘의 경치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가고 싶다면, 기차여행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궁화호 장항선을 이용해도 좋다.

보령머드는 청정갯벌에서 채취된 진흙에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혹여나 피부병을 옮긴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 오히려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천연 미네랄 등 각종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아주 좋기로 유명하다.

3.5km에 이르는 해안선을 지닌 대천해수욕장의 바

로 중앙인 머드광장에 자리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머드체험을 즐겨보자. 풍선놀이틀로 만들어진 대형 미끄럼틀을 타고 머드 속으로 풍덩! 머드탕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을 문히고 뒹굴다 보면, 어느새 하얀 치아만 남기고 온몸에 머드팩을 한 것처럼 모두 ‘토인’이 된다. 머드를 실컷 문히고 놀다가, 바다로 뛰어들어 짜디짠 바닷물에 머드를 씻어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모처럼 근심, 걱정 다 내려두고 아이처럼 신나게 놀아보자.

100배 즐겨라!

축제 기간 동안 머드체험관이나 머드팩체험, 머드슬라이드, 대형 머드탕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준비된다. 머드마사지를 즐기고 싶으면 머드셀프 마사지존, 단체게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머드몹션, 머드를 바르지 않은 관광객을 투옥시키는 깜짝 이벤트인 머드 교도소, 부모와 함께 즐기러 온 아이들을 위한 머드 키즈랜드 등 곳곳에 다채로운 이벤트와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간에는 열린 음악회와 머드 불꽃축제, 7080 콘서트 등의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 머드를 온몸으로 체험함과 동시에 오랜만에 감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 머드 속에서 하루 종일 지치도록 즐겼다면, 이제는 배고플 시간. 해수욕장 주변으로 쪽 늘어선 조개구이 가게에 들러, 각종 신선한 해산물과 조개구이도 먹으며 축제를 100배 더 즐겨보자.

충분히 즐겼음에도 2% 아쉬다면, 대천해수욕장에서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무창포 해수욕장에 들러 보는 것도 좋다. 한 달에 두 번 사리 때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의 바닷길을 걸어 보면 좀 더 만족스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가족과 함께 온몸으로 체험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보령머드축제를 경험해 보는 것. 분명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여름철 대표 별미

3



편집진

장마와 무더위로 가만히 있어도 힘이 쪽쪽 빠지는 7월이다. 후덥지근한 날씨로 인해 쉽게 피로해진다면, 여름 건강을 지켜주는 제철 음식을 챙겨보자.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여름철 보양식 세 가지를 소개한다.

보기만 해도 약이 되는 **농어**

흔히 ‘봄 조기, 여름 농어, 가을 갈치, 겨울 동태’라 하며 농어를 여름철 생선의 첫손에 꼽는다. 농어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에 가장 맛있는데, 멸치와 학꽂치 등 먹잇감을 찾아 강 하구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이때가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다.

옛말에 ‘7월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고 했듯이 농어는 다른 어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무척이나 높아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사랑받아 왔다. 비타민 A·B·D는 물론 칼슘과 인, 철분, 나트륨, 니아신 등도 풍부하여 몸이 약한 아이나 산모들이 원기 회복을 위해 즐겨 먹었다.

농어의 쓸개는 ‘바다의 응담’이라고 불리는데, 쓸개로 담근 쓸개주는 좀처럼 취하지 않으며 과음한 다음날 속풀이 술로 애용되고 있다. 한방에서는 농어를 오장을 튼튼하게 하는 대표 음식으로도 꼽는다. 농어 요리로는 담백하면서도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일품인 농어회와 껌질숙회, 농어살 스테이크, 농어 맑은탕 등이 있다.



씨와 껍질 모두 영양 가득한 수박

폭폭 찌는 더위에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중에서도 땀을 흠뻑 흘린 뒤 맛보는 차가운 수박은 찜통더위 속의 청량제나 다름없다. 과육뿐 아니라 껍질과 씨앗까지 영양을 두루 갖춰서 '특급 식품'이라 부를만하다.

수박씨에는 단백질, 지질, 리놀렌산 등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또한 붉은색 과육에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토마토보다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수박의 빨간 속을 둘러싸고 있는 흰 부위는 체내 수분 공급에 좋으며,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수박은 92%가 물이고, 100g당 칼로리가 21kcal에 불과한 저칼로리 과일이다. 또한 지방 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으로 적합하고, 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다. 잘 익은 수박은 두드렸을 때 경쾌한 소리가 나고, 검은색 줄무늬가 진한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간식 옥수수



무더운 여름밤, 허기를 달래줄 야식으로는 아삭하고 탱글탱글하면서도 쫄쫄옥수수 옥수수가 제격이다. 갓 찌서 무럭무럭 김이 올라오는 옥수수를 호호 불어가며 먹던 한여름의 추억,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옥수수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7월 말에서 9월 초까지가 제철이다.

옥수수 알맹이에 있는 씨눈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어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고, 식욕부진이나 나른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옥수수 속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옥수수수염으로 차를 끓여 먹으면 이뇨 작용이 활발해져 붓기를 빼는데 좋다.

옥수수는 엽산, 칼륨, 마그네슘 등이 일반 쌀의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 또한 섬유소는 10배나 되어 변비나 위장염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다. 옥수수를 고를 땐 껍질이 선명한 녹색이고, 알맹이가 촉촉하며, 수염이 갈색인 것을 선택한다.

매출을 쑥쑥 올려주는 똑똑한 ‘날씨경영’

(주)블랙야크

블랙야크는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날씨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체감온도와 거주 지역의 온도 등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2012년, 블랙야크는 ‘HAT’이라는 신개념 지수를 개발하여 사람이 온도마다 다르게 느끼는 최적의 착장으로 다운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7개 산악 지역과 5개 도심 지역의 최대풍속을 적용하여 체감온도를 산출했다. 특히, 사내 및 매장 내에 실시간 날씨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케팅의 옷을 최적의 스타일로 갈아입히는 등 날씨마케팅을 생활화하였다. 그 결과, 전국 300여 개 점포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약 30% 신장했다(2014년 1월~5월 비교).

사람이 온도마다 다르게 느끼는 최적의 착장에 대해 다운제품을 중량형태별로 연구한 수치인 HAT 지수에서 HAT 1000은 영상 9.8℃~영하 7℃에 입을 수 있는 경량 다운재킷, HAT 3000은 영상 5.4℃~영하 15℃에 어울리는 미들 다운재킷, 그리고 HAT 5000은 영상 2℃~영하 22℃의 강추위를 막아주는 헤비 다운재킷이다. 이 신개념 지수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날씨와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HAT 지수: HAT은 HIMALAYA(히말라야), ALTITUDE(고도), TEMPERATURE(온도)의 약자로 블랙야크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최적의 착장에 대해 다운제품을 중량형태별로 연구한 결과이다.



HAT 지수가 높을수록 날씨가 추운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운재킷의 두께도 두꺼워지는데, HAT 1000은 히말라야 1000M급, 3000은 3000M 정도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00 이상의 숫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어떤 제품보다 상위 단계 제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HAT 지수를 처음 선보인 후, 다운재킷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부각됐던 복원력 대신, 보온성과 착장성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블랙야크는 날씨 예측을 통해, 다운제품 전체 물량을 15% 늘렸는데, 헤비 다운제품은 그 중에서도 30% 확대했다. 2013년 가을·겨울철엔 한파를 예상하여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방한용 장갑과 부츠 등을 출시하였다. 다운점퍼의 인기를 감안하여 전년보다 입고 시기를 당겼으며, 각 지역별 온도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했다.

※ 날씨에 따른 판매제품의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 2012년 날씨경영인증 획득 이후, 블랙야크는 지속적으로 기상정보를 기업경영에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2014년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궁금한 날씨경영 이야기

이상기후는 산업에 기회 요인인가, 위협 요인인가?

정형화된 기상 패턴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검증된 기상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업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날씨 정보를 사업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그날의 기상 정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스타일을 제안하거나, 매장 안에 있는 마네킹 옷을 날씨에 꼭 맞게 교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날씨를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여름 패션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더운 여름에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팔을 선호하는 것보다 얇은 긴팔을 입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머우리'에 대한 의리!



노랑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많다. 1년에 대략 3~4번의 큰 시험이 있는데, 저마다 응시하는 시기에 따라 노랑진에 머무르고 떠나고를 반복한다. 그에 따라 매장을 찾는 고객의 발걸음도 늘거나 줄어들곤 한다.



허성민
H_STYLE 헤어살롱
노랑진점 점장

“진작 파마하고 싶었는데 시험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야 왔어요.”

어깨 정도 오는 밝은 갈색 머리에 귀여운 인상을 가진 여성 고객이 찾아왔다. 바디펌(모발 끝에 S컬이나 C컬을 만들어 주는 파마)을 하고 싶으며 헤어디자이너와 상담을 하는데,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듯 여러 질문을 계속하였다. 미용실에 올 때마다 신경 쓰이는 듯 보였다. 새삼스레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중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추려 보았다.

Q “비가 오는 날 파마를 하면, 머리 모양이 잘 안 나오나요?”

A 비가 와서 습도가 높은 날에는 곱슬머리인 사람은 곱슬기가 심해지고, 직모인 사람은 머리가 축 가라앉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날 파마를 하면 컬이 안 나오거나 예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모발은 평소에도 10%가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100도가 넘는 고열을 머리카락에 가하는 매직파마나 세팅파마 같은 시술에도 견뎌낼 정도로 모발에는 항상 수분이 존재한다. 물론 비 오는 날에는 높은 습도 때문에 머리카락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모발 내부를 구성하는 단백질들의 구조를 원하는 파마에 맞게 잘 결합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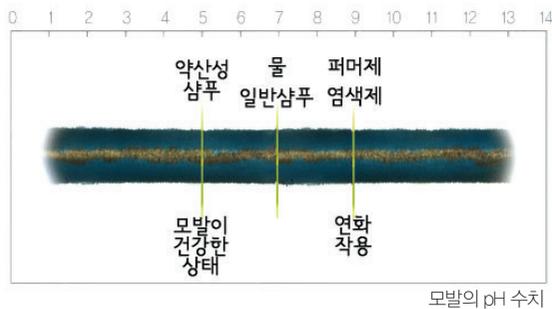
개발돼 있다. 또한 열처리 기구 등을 통한 수분 조절도 거의 공식화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장마철이든 태풍이 오든 OK!

Q “오늘 파마했는데도,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머리 감아도 될까요?”

A 파마 후에 샴푸를 하면 컬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것도 단골 질문 중 하나다. 실제로 샴푸 횟수에 따라 파마 유지력이 달라지는 건 맞다. 컬이 늘어지는 것은 모발의 pH(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모발 팽윤 작용 때문인데, 모발의 기본 pH는 4.5~5.5이다. 일반적으



로 판매되는 샴푸의 pH는 중성인 7정도. 때문에 모발에 샴푸가 닿으면 모발이 그것을 흡수하여, 부피가 늘어나 파마로 만들어놓은 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샴푸할 때 사용하는 물도 pH 7이다. 그러니 모발은 물만 닿아도 변화하는 것이다. 그럼 파마 후에 어떻게 해야 컬이 오래 유지될까? 바로 산성샴푸를 사용하면 된다. pH 5~6 정도의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면, 물에 의한 팽윤 작용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파마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비싼 파마를 하고서 일반 샴푸를 사용하기 보단, 약산성샴푸를 구매해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스타일 유지와 절약의 비결이다. 그렇다고 약산성샴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컬이 순식간에 풀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샴푸 한 번으로 머리가 풀렸다면, 그건 시술이 잘못된 것이다.



Q “샴푸하고 볼 걸 그랬나요?
여름엔 땀도 많이 나는데 조심해요.”

A 고객들 중에는 매너를 위해 머리를 꼭 감고 오는 경우가 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전문직이면서도 서비스적인 헤어디자이너에게 매너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공손하게 만든다. 하지만 염색을 할 때

만큼은 샴푸를 하지 않고 오는 걸 추천한다. 대부분의 염색약에는 많은 적든 알칼리 성분인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다. 염색 시술을 할 때, 두피가 따갑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이다. 샴푸를 하면 두피를 감싸고 있던 각질과 피지 등이 사라지게 되어, 염색약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힘이 떨어진다. 그러니 염색할 때만큼은 샴푸하지 않은 채로 미용실에 방문하자. 여름철에 유분기가 조금 있다고 싫어하는 헤어디자이너는 없으니까.

Q “다음 주에 바다로 놀러갈 건데,
바닷물 닿아도 괜찮나요?”

A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예쁘게 하고 놀러가기 위해 머리 모양을 새롭게 바꾸곤 한다. 하지만 모발이 바닷물에 닿으면, 바닷물에 있는 염분으로 인해 높은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모발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서 모발이 푸석거리게 된다. 또 샤워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이 묻은 채로 있으면, 모발 안에 있는 단백질이 손상되어 탄력마저 떨어진다. 그러므로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최대한 빨리 샤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닷물과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막는 방법으로는 헤어 매니큐어 시술을 하는 것이 있다. 모발에 코팅을 하듯 매니큐어를 하면, 자외선은 물론 바닷물에 의한 손상도 예방할 수 있다. 또 원하는 반사빛을 넣을 수도 있으니 금상첨화. 대신 여행 가기 일주일쯤 전에 해야, 물이 닿을 때 색이 빠지는 현상이 없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오, 드디어 고객의 시술이 시작되었다. 합격이 목표인 그녀의 간절한 꿈을 응원하듯 디자이너도 정성을 다한다. 헤어스타일의 변화만으로 이미지가 멋지게 달라지는 과정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창밖을 보니, 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들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여름철 시원한 장맛비 같이, 고객들의 발길도 쏟아져 내리듯 이곳을 방문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한여름 밤의 포항 로맨스



박성환 / 포항기상대

매년 7월, 포항의 영일만해수욕장과 형산강체육공원에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려 한여름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다.



여름! 이맘때면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떠난다. 여름휴가라고 하면 동해, 동해라고 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포항이다. 포항은 대게, 물회 등 각종 먹거리와 동해안을 따라 펼쳐진 해수욕장, 그리고 제철 등 철강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유명하다. 또한 한여름의 포항에는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불빛축제! 포항시는 2004년 제1회 포항불빛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7월 말이 되면 대규모 불빛축제를 개최한다. 제2회부터는 국제축제로 바뀌었는데 러시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가 참가하면서 세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이 축제는 '포항의 5대 불빛'을 담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2천여 년 전 신라시대 해와 달의 정령인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야기에 나오는 빛이 '포항의 빛'의 시작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열게 됐는데, 이를 '역사의 불빛'이라 한다. 그리고 호미곶의 일출을 '자연의 불빛', 포스코의 용광로를 '산업의 불빛'이라 부른다. 또한 포스텍의 방사광 가속기가 88년에 설치됐는데, 이를 '첨단의 불빛'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세워진 복합 물류항으로서의 영일만항을 '미래의 불빛'으로 삼았다.



형산강체육공원 행사장



영일대해수욕장 행사장



포항의 5대 불빛에서 시작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포항시에서 주최하고, 포스코와 포항시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포항시는 이 축제를 통해 해마다 100~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1000여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작년 7월 말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선 낮에는 각종 체험행사와 향토먹거리 행사가 열렸다. 이어 저녁부터는 뮤직 불꽃쇼와 가요제가 개최됐고, 시내 거리에선 불꽃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중에서도 개막식 날 밤에 진행한 불꽃경연대회가 포항국제불빛축제의 대표 공연이었는데 중국, 프랑스, 캐나다의 공연팀이 참가하여 각 나라의 특색을 나타내는 불꽃쇼를 연출하였다. 이를 본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탄성을 금치 못했다.

포항기상대가 이런 큰 행사를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매년 불빛축제가 개최될 시기가 되면, 성공적인 행사 진행과 방문객들의 안녕을 위해 포항축제위원회를 비롯하여 포스코 진행기관에 기상지원을 실시해 왔다. 본격적으로 축제가 진행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포항시와 행사 장소를 중심으로 상세기상정보 및 예보를 지원하였다. 또한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및 현장 지원을 하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왔다.

특히 메인이벤트인 불꽃경연대회에서는 하늘 상태나 바람의 예보·정보가 행사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포항기상대의 시기적절한 기상정보서비스가 있어 행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작년에는 포항시로부터 기관단체표창을 받고, 유관기관과 시민으로부터 기상청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올해는 7월 31일(목)부터 8월 3일(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등 예년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도 포항기상대는 진행기관과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올해 불빛행사와 관련한 소개, 먹거리, 숙박, 행사 일정 등은 포항시축제위원회 홈페이지(<http://piff.ipohang.org>)나 전화(054-270-2255)로 확인하면 된다.

한여름 밤 포항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열기 가득한 불빛행사를 즐기길 기대해 본다.



2013년 포항국제불빛축제 불꽃경연대회
(출처: 포항시축제위원회)

‘라시디라, 라시디라’

점점 하나 되는 광주청과 요녕성



김은호 / 광주청 기획운영팀

‘뿌리리리~ 뿌리리리~’

수화기를 들자, “Do you want~?” 서툰 영어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 중국 요녕성기상국 담당자의 전화였다. 순간 당황했지만 짧은 영어 회화 실력으로나마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방한 계획에 대한 문의였는데, 자세한 건 메일로 다시 연락하기로 하며 전화를 끊었다. 순간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요녕성기상국은 2002년 기상협력약정을 체결한 후, 기상협력과 기상기술 교류를 위하여 매년 상호 교차 방문하며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요녕성기상국의 Zhang Yanping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5명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13차 기상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기상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 대표단 업무를 처음 맡은 나는 선배들에게 조언을 요청해 방문 일정과 숙소, 만찬, 통역 등 여러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점검을 하고, 또 직원별로 역할을 분담하며 착실하게 준비해 나갔다.

드디어 요녕성기상국 대표단 방한하는 날. 이른 새벽부터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입국 절차 등으로 인해 도착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만났는데, 대표단 5명의 환한 미소가 기다림의 지루함을 금세 잊게 만들고 낯설음도 떨쳐내 주었다. 서로 간단하게 인사를 한 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곳은 도심 속에 위치한 테마형 상업수족관인데 다양한 종류의 전시 생물을 볼 수 있었다. 즐겁게 관람하고, 기념 촬영도 하며 간단한 음료도 함께 마시다 보니, 어느새 서먹함이 점점 사라져 갔다.



다음날은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양국 간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서를 주고받았다. 또한 기상세미나도 열어 서로의 기상기술에 대해 교류하였다. 특히 세미나 내용 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기상정보 제공과 매실 육성 과정에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질문과 답변이 계속 오고 갔다. 이후에는 저녁 만찬을 통해 양국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유근기 예보과장이 몇 해 전 전문가단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기상인이 이번 중국 대표단에 포함돼 있어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졌다.

다음날은 제주도로 이동하여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하였다. 중국 대표단은 센터의 건물 구조와 면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매우 유심히 살펴보았다. 또한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이유를 쉽게 맞춰 신기했다. 나도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 알고 보니 태풍을 처음 맞이하여 관측하는 곳이 여기라고 한다. 정말 잘 배웠다.

“이식입니까, 좌식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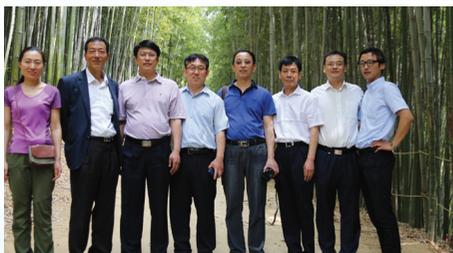
대표단들이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묻는 말이었다. 중국대표단의 식사 코스를 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 중국인에 대해 사전조사를 해보니, 좌식은 길어야 10분 정도 앉을 수 있고, 날것으로 나와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피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대표단들에게 물어보니,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정을 바꿔 횃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살아있는 전복이 통째로 나오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자들은 “으~~” 소리를 내며 징그럽다고 난리였다. 하지만 한 번 먹더니 “One more~!” 한국 발음이 잘 되진 않지만 “마시파! 마시파!”라고 환호를 하였다. 중국은 고량주같이 독한 술이 유명하지만, 대표단들은 우리나라 소주 맛을 보더니 역시나 또 “마시파! 마시파!”를 외쳤다. 점심과 저녁에 먹은 삼계탕, 비빔밥, 떡갈비 등 모두가 성공적이었다.

중국 대표단에게는 제주도 하면 바닷가였다.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하여 맑은 제주도 바다를 보여주자 무척 만족해했다. 땅을 파보더니, 계가 나온 것을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워했다. 마지막 날은 한라산 1100고지 습지 탐방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중국 대표단과 함께한 5일 동안의 일정. 업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다지고, 앞으로도 기상기후 업무의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서는 이번을 계기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등과의 국제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장비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민간기술협력 박람회

기상기술과

기상청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군기술협력 박람회'에 참가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기상청,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이 참여하여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방기술의 발전, 정부부처 간 협업, 민군기술협력 성과물의 전시와 홍보로 국민은 '생산하는 국방'을 체험하고, 기업에게는 '창조경제 주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축사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선진 국방기술을 축적해 왔고, 수준 높은 민간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큼니다. 정부도 민군기술 융합과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전시관 입구에는 실물크기로 전시된 전투기와 무기들이 전시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에서는 이라크, 필리핀으로 수출된 공격기 FA-50이 전시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미국 수출형 고등훈련기 모형이 전시돼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미사일 '천무'도 최초로 공개되어 위엄을 과시했다. 그 외 LIG 넥스원은 조류퇴치로봇, KAI는 자폭형 고속 무인기 테이블킬러를 전시했다.

민군기술협력 박람회에서는 무기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체험거리도 방문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우선 가상사격장에서 사격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으며,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봤던 전차에 실제로 탑승도 해볼 수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부스는 황금마차(PX가 없는 GOP 지역에 간식을 실어 판매하는



장비개발팀 류수호, 서태건, 임나영



차량)가 배치된 선진병영문화체험관이었다. 이미 군대 생활을 경험했던 방문자들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냉동식품 및 과자류를 맘껏 골라 당시를 회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조업체 부스에서는 발열형 전투식량을 맛보기 위한 줄이 끊이지 않았다.

기상청은 민군협력기술 사업과 범부처 융합 사업성과를 홍보하였다.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와 레이더를 공동 활용하여 관측 공백을 해소하고,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범부처 융합 성과물을 자랑하였다. 또한, 2017년을 목표로 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자원통상부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고고도 장기체공시범기 개발 홍보는 이번 박람회의 주제에 부합하는 홍보물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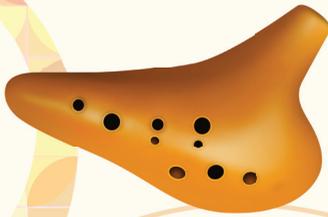
그리고 빅데이터인 기상자료를 적극 개방해 민간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곡물 가격 예측, 선박의 안전 운항, 전력 예측,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상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국내기술로 개발한 국산화 장비 개발현황을 소개하였고, 기상장비기술개발품 5점이 전시되었다. 기상

장비 개발은 현역군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군 관계자와 관련 기업체에서 개발 장비의 성능과 표출자료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날씨방송체험관과 지구본 모형 기상체험시설은 이번 박람회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이기도 하였다. 특히 현역군인과 학생들이 많이 찾아 즐거운 전시공간이 되었다.

기상청 홍보관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지구본 모형 체험시설은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으나, 관심을 끌 참신한 콘텐츠 발굴과 기상을 쉽게 표현하며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했다. 추후 다른 분야의 전시회 참여 땀 기상전시의 목적과 전시 품목, 그리고 홍보에 좀 더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작은 거위를 아시나요



선상묵 / 김포공항기상대

누구나 한번쯤 악기를 멋들어지게 연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배워볼 마음으로 기타나 색소폰, 플루트 등 큰마음 먹고 악기를 구입하지만,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 않아 장롱 속 천덕꾸러기가 된 경우도 종종 있다. 나 또한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언젠가 한번은 꼭 배워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그런 와중에 흑산도기상대에 첫 발령을 받고 현업을 하게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예보나 관측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에 있으면서 무언가 하나는 꼭 배우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런 와중에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인 'My Heart Will Go On'을 낯선 악기로 멋지게 연주하는 사람을 보았다. 곧 '이것을 배워야겠다!'는 필이 꽃혔다. 그 악기가 바로 '오카리나'인 것이다.

오카리나(Ocarina)는 이탈리아어로 '작다' 또는 '어리다'라는 말과 '거위'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흙을 빚어 만든 토기 악기의 일종으로 생김새가 마치 작은 거위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카리나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특별활동 학습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나 또한 다른 사람들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접하면서 양파를 까듯이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악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카리나는 부는 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소리가 카랑카랑하면서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마저 준다. 악기가 작아 소리가 밝고 가볍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예리한 소리는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오카리나를 불 때면 그 느낌이 참 신선하다.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 쉽게 들어 자연을 노래하는 데는 일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쉽게 자연과 동화되는 흙이 주는 또 다른 혜택인 악기가 아닐까 싶다.

그럼 오카리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카리나는 형태, 재질, Key, 운지 방식, 운지 흡수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다.

※ 오카리나의 종류

형태	√ 오리형(T형) ♪ 대문자 T의 모양과 비슷 대부분의 형태 √ 원형(앵글리형) ♪ 원형 또는 타원형
재질	√ 흙 ♪ 분청토, 백자토, 청자토 등 √ 플라스틱 ♪ 파손방지, 대량공급 √ 나무 √ 금속 √ 기타(알루미늄 등)
Key	√ 소프라노 ♪ C, F, G Key √ 알토 ♪ C, F, G Key √ 테너 ♪ C, F, G Key √ 베이스 ♪ C Key
운지 방식	√ 순차 운지 방식 ♪ 저음에서 고음 순으로 운지 흡을 열고 닫음으로 음계를 내는 방식 √ 조합 운지 방식 ♪ 운지 흡을 조합하여 열고 다음으로 음계를 내는 방식
운지 흡수	√ 오리형 ♪ 8홀, 10홀, 11홀, 12홀 등(더 많은 운지 흡수도 있음) √ 원형 ♪ 4홀, 5홀, 6홀, 8홀, 10홀 등
기타	√ 보다 음역을 확장하기 위한 더블 오카리나, 트리플 오카리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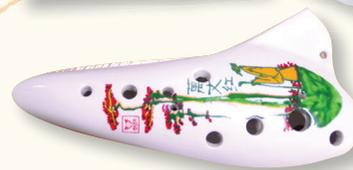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기를 다루려면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카리나는 비교적 악보 보는 법이 단순해 누구든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운지법이 그리 어렵지 않아 조금만 익히면 손쉽게 연주 가능하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오카리나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악기라는 생각이 든다.

오카리나를 직접 접해 보니, 꼭 비싸야만 좋은 악기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면 가격이 비싼 악기도 좋을 것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저렴한 악기로 시작하여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원하는 악기로 구매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흑산도에서 오카리나의 손맛을 알게 될 때쯤 목포기상대로 발령을 받아, 지금은 다시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오카리나를 꺼내어 기초부터 연습하는 중이다.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에게 하나 더 가지고 있던 것을 주어서 같이 연습하고 있는데, 많이 놀아주지 못해 아빠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딸에게 악기를 통해 작으나마 웃음을 줄 수 있어 덩달아 나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도 꼭 악기 하나는 다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음악적 지식과 특별한 손재주가 없어도 혼자 연습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멋도 나는 오카리나를 추천하고 싶다.

11주 동안의 잊지 못할

수업



조용중 / 2014년 신규자 교육생

지난 4월, 꿈에 그리던 기상청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11주간의 '신규자 조직적응 능력향상 과정' 교육을 받게 되었다. 연수 첫날, 강의실인 다울관에 모여 입교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내가 정말 기상청에 합격했구나!'라는 실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젠 기상청 직원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번뜩 들었다.



처음 1주차 기본 소양과 관련된 수업이 주를 이뤘다. 이뎨 아직 동기들 사이가 서먹하여서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주말에 동기들을 모아서 경복궁으로 놀러가기도 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갔다.

2~3주차 전공 수업이 많이 편성됐다. 오랜만의 전공 수업에 다들 흥미가 생겨서 수업에 활력이 솟았다. 나 또한 꿈이 예보관이기 때문에 일반기상학과 일기예보 수업이 특히 재미있었다. 학교에서는 배우기 힘든 부분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장학습으로 관악산 기상레이더를 방문했는데, 다들 공부만 하다 보니 체력이 약해져서 등반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게다가 하산은 케이블카를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천동과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 때문에 운행이 중지되고 말았다. 결국 비를 맞으며 하산을 했는데, 이때가 가장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나 싶다.



2014년 신규자 입교식



경복궁 향원정 견학

4~5주차 리얼 아카데미 발표가 있었다. 조별로 ‘역경을 이겨낸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제였다. 다들 조별 회의를 하면서 누구를 인터뷰 하고 어떻게 섭외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마라톤 부부인 김효근 씨와 김미순 씨,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소아마비 장애인인 김용기 교수 등을 만나 인터뷰한 이야기를 발표할 수 있었다.

6주차 충북 제천에서 2박 3일 동안 공동체 훈련을 진행하였다. 특히 챌린지 어드벤처와 킥런챌린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챌린지 어드벤처는 유격훈련처럼 15m 높이의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조원들 사이의 유대감과 단결력을 두텁게 해줬다. 그리고 킥런챌린지는 QR코드를 찾아서 미션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주어진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조원들끼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공동체 훈련



관악산 기상레이더 방문



리얼 아카데미 발표

7~8주차 자원봉사활동이 있었다. 두개의 팀으로 나뉘 서울시 대방동의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구의동의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봉사활동을 나갔다. 대방동 작업장에서는 손수건 포장이라 형광등 부품 조립을 했고, 구의동 작업장에서는 골판지 절단 작업을 하였다. 내가 갔던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만의 노동으로는 충분한 임금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었다.

9~10주차 지방에 있는 기상대에서 현장실습을 하였다. 교육생들이 전국의 기상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실습을 했는데, 나는 대구기상대로 배치되었다. 이곳에서 구름과 시정(가시거리) 등을 관측하는 법을 배웠는데, 처음엔 구름양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감이 오질 않았다. 또 구름 종류도 책에 나오는 기본 구름 모양 10종을 하늘과 비교하면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관측을 계속 하다 보니 구름양에 대한 감이 조금씩 생기고, 구름 모양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나만의 시정도를 만들기도 했는데, 범어네거리 3km, 황금네거리는 5km, 앞산은 10km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하였다. 대구기상대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면서 관측하는 법도 배워보고, 동네예보도 직접 내보면서 기상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실습 동안 기상청에 계신 많은 분들을 뵈고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11주차 연수 첫날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신규자 조직적응 능력향상 과정’ 교육이었다. 또한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았는데, 이젠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에 아쉬워지기도 한다. 이 설레는 첫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열정 가득한 새내기 기상인으로서의 발돋움을 힘차게 내 던져야겠다.

'다락방'과 함께한 150회 순간

“다함께 즐기는 방송!
안녕하세요.

사내방송 **다樂방**입니다.”



편집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마다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2013년 1월 4일에 처음 문을 연 '다락방'이 오는 7월 15일에 벌써 150회 방송을 맞이한다.

그동안 이슈 인물 초대석, 리포터 현장 취재, 최신 소식 전달, 나도 DJ 코너, 사이코드라마 및 패러디 광고, 과 대항 퀴즈 대결 이벤트 등 매회 다양한 콘셉트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상청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다락방'에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다락방'과 함께한 1년 6개월 동안의 기억. 그 소중한 추억의 순간들을 돌아보았다.

'나도 DJ!' 초대석
인물 열전



고윤화 청장



한겨레 이근영, KBS 김성한 기자



직장협의회 한성민, 조구희



정홍상 차장



청원경찰 인기석, 최지웅



켄 크로포드 前 단장



'MC세균' 김세원, 나득균



KBS 기상리포터 서성희



'웨더맨' 하중훈, 김기현, 배철호



'오피스톡' 우진규, 김성목

다함께 · 즐기는 · 방송

다락방

선물이 팡팡! 이벤트 현장



선물 증정식



과 대항 퀴즈 대결



과 대항 퀴즈 대결



피자 이벤트 당첨



100회 특집 공개방송



웃음이 가득한 다락방



100회 특집 공개방송



100회 특집 공개방송



Book /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날씨와 기후 변화 이야기



알기도, 날씨와 우리 생활, 계절의 변화 등
교과서 속 날씨 지식을 만화와 사진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초등학교 교과학습, 시사상식, 논술대비까지 해결하는 통합교과학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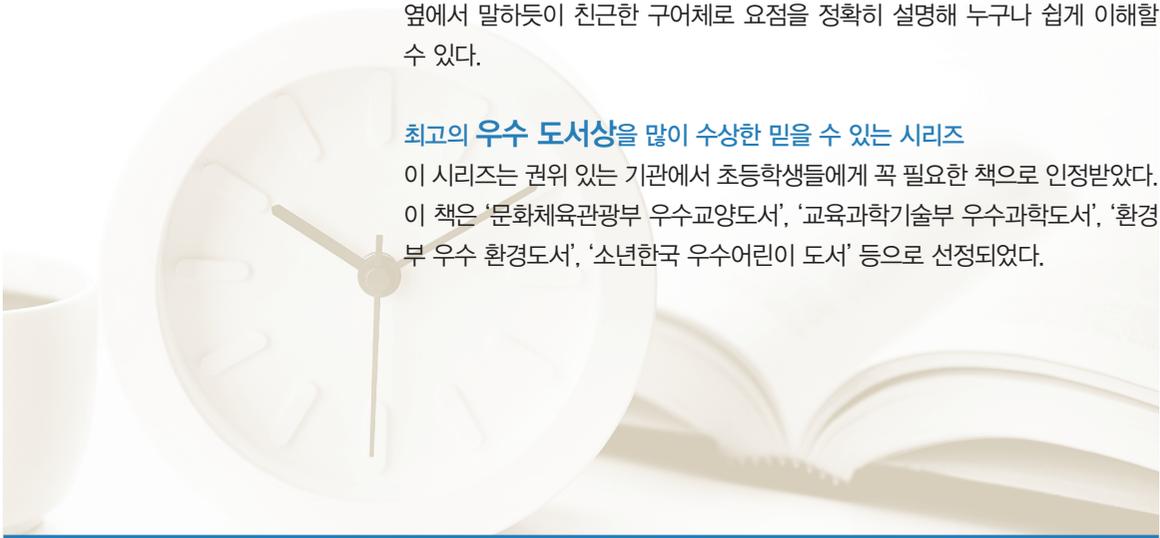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과학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주요 내용부터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시사상식까지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모두 담았다. 초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까지 연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교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다

초등학생이 궁금해 하는 질문과 꼭 알아야 할 핵심 질문을 골라 구성하였다. 옆에서 말하듯이 친근한 구어체로 요점을 정확히 설명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고의 우수 도서상을 많이 수상한 믿을 수 있는 시리즈

이 시리즈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인정받았다.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교육과학기술부 우수과학도서', '환경부 우수 환경도서', '소년한국 우수어린이 도서' 등으로 선정되었다.



저자 : 김병춘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날씨를 예보하는 예보관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예보에 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남대학교 등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저자 : 박일환 현재 국가태풍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상청 날씨체험캠프를 진행했으며, MBC <내 친구들의 세상>, KBS <꼬꼬마 텔레토비> 등 다양한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기상청 : 신기하고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속으로》, 《날씨에 관한 모든 것》 등이 있다.

'특급' 반전 있는 그녀

무척이나 무료한 날이었다. 애인 없다고 야근시키는 회사, 있는 욕 없는 욕 다했건만 막상 집에서 쉬려니 근질근질하기만 했다. 친구 녀석들은 애 봐야 한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커피때 바글바글한 주말에 혼자 다닐 만큼 강심장도 아니었다. 결국 맥주나



홀짝이며 TV 속 가상커플의 달살행각을 안주 삼아 질경질경대며 보고 있는데, '띠링' 문자가 왔다.

**준형아, 왜 전화 안 받아? 우리 아직 헤어진 거 아니지?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며...ㅠㅠ**

당연히 잘못 온 문자였다. 난 여자를 찰만큼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자한테 받은 문자가 오랜만이어선지, 아님 너무도 심심해선지, 잘못 온 문자마저 괜히 반가웠다. 하긴, 그 무렵의 난 몇 년 만에 결혼한다고 연락 온 후배놈 전화까지 기쁘게 받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있었다. 그래서 꺾꺾 눌러 답장을 해줬다.

연락 잘못하셨습니다. 전 준형이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다시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 니 맘도 편치 않잖아!

하라는 대로 다할게. 돌아와 줘, 제발!



**정말 준형이란 사람 아닙니다. 전 김철민이라고요.
문자 잘못 보내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랑이 너무 힘들어서...T-----T

슬퍼하는 그녀의 문자를 보니, 문득 옛 생각이 났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사랑에 미친 듯이 매달린 적이 있었지! 조금 잔해졌다. 그녀의 심정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답장을 보냈다. 난 친절하고 시간 많은 남자니까.

**주제넘게 한마디 하자면 그 남자 잡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되나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특급' 반전 메시지가 이어졌다.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면
그 애보다 더 멋진 남자 만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꼬꼬마에게 감정이입을 했다는 건가? 난 저런 마음을 가져왔을 때 가슴을 훌쩍 넘어서였는데, 정말 요즘 애들이 참 빠르긴 한 것 같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 했다. 그런데 왜 자꾸, 초등학교생에게 완패한 것 같은 걸까!





구름이는 날씨정보를 꿰고 있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데이트 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없다.



뭐 가끔 구름이의 살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지만...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당선(6.18~27)

고윤화 청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상기구의 '제66차 집행이사회'에서 집행이사로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2007년부터 계속하여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2014 지구물리 발전 포럼 개최(6.3)

기상청은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지구물리 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정부,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물리 관측기관 간의 효율적인 자료 공유와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수문기상협력센터 개소식(6.10)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를 대비하고,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수문기상협력센터의 개소식에서 기상청과 K-water가 앞으로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반기 기상홍보실무단 워크숍(6.10)

기상청의 홍보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상청 홍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하상욱 시인의 창의력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2014년 상반기 기상고객협의회 개최(6.18)

에너지, 농수산 관련 공공·산업 부문 단체, 시민 단체 등에서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기상전망과 방재기상 대책 등에 관한 안건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및 날씨경영인증 수여식(6.24)

기상청은 기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9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과 '제5회 날씨경영기관 인증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기상산업대상 기상정보 활용 부문에서는 (주)블랙야크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날씨경영기관 인증식에선 11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서를 받았다.



젊음과 열정의 '기후변화 홍보단' 위촉(6.26)

기상청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3기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인 '너(ner)'를 위촉하였다. 이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주변의 기후변화 현황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워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 내수전전망대, 대풍감, 성인봉 등을 두루 볼 수 있는 둘레길은?
 ① 소양강둘레길 ② 지리산둘레길 ③ 울릉둘레길 ④ 봉화산둘레길
- 외국 관광객들도 좋아하는 체험 축제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충청남도의 대표 행사는?
 ① 태안빛축제 ② 보령머드축제 ③ 울산고래축제 ④ 춘천호수 별빛축제
- 이탈리아어로 '작다'와 '거위'의 합성어는?
 ① 하모니카 ② 리코더 ③ 플루트 ④ 오카리나

지난 달 퀴즈 정답

- ① 국제워크캠프
- ② 전주국제영화제
- ④ 제주도

지난 달 퀴즈 정답자

1. 김중찬(서울) 2. 조항원(경기)
3. 장우익(강원) 4. 우정렬(부산)
5. 권성현(대구)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7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근무 지정	6.11	예보국	수치자료통합팀	기상사무관	마승원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사무관	조경모
전보	6.16	기상청	대변인실	부이사관(대변인)	전준모
		예보국	총괄예보관	기상연구관(총괄예보관)	정관영
		기상청		기술서기관	권오웅
		기상청	대변인실	기상사무관	김경립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기상사무관	김성진 김동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정종운
		예보국	총괄예보관	기상사무관	허진호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기상연구관	서동일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	기상사무관	김종광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	기상사무관	정상훈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기상사무관	최대범		
항공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김태수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6.16	기상청	방송통신사무관	김하진	
			서기관	조기현	
정년 퇴직	6.30	기상청(공로연수 파견)	기술서기관	조서환	
			기술서기관	최기상	
			기술서기관	박종식	
			기술서기관	김상용	
			기술서기관	손태성	
공로 연수	7.1	기상청	부이사관	이명수	
			기술서기관	정병석	
			기상사무관	김시중	
전보	7.1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고달홍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조남산
		예보국	예보정책과	기상사무관	김명규
파견 근무	7.1	기상청	기상사무관	김병준	

넥타이 푸시는 우리아빠,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 여름 양복은 쿨맵시.
넥타이를 풀고 반팔셔츠만 입어도
2도 이상 체감온도가 내려간대요.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시원하게 지내는 센스-
어때요? 우리 아빠, 칭찬 받을만 하죠?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

14:00 - 17:00



여름날, 고맙습니다!

칭찬릴레이 이벤트

무더운 여름,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힘이 되는 칭찬 한마디를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칭찬릴레이를 시작합니다.
www.powersave.or.kr

가정



- 안보는 TV 끄기
- 청소기 사용 자제
- 에어컨 사용 자제

사무실



- 쿨맵시 입기
-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 선풍기 사용하기

상점



26℃

- 문열고 냉방 자제
- 적정온도 냉방
- 전등 끄기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